

085
ISSN 1120-2845

International Magazine of Space Design | bob |

**KHOSLA ASSOCIATES | designLAB NLSS |
NIKE FOOTBALL TRAINING CENTRE, SOWETO |
YANGSURI "5 IN 3" SECOND HOUSE | HOUSE
TAISHIDO | SANUMUR NAMBON | SHANGHAI
MUSEUM OF GLASS | bob COORDINATION
KONSTANTIN GRICIC
bob COLLECTION:
LIBRARY**



1934 1960 1973
1961 1975
1981 1984
1935 1950 1970

Khosla Associates



Sandeep Khosla and Amaresh Anand

Khosla Associates : The team at Khosla Associates, headed by Sandeep Khosla and Director, Amaresh Anand consists of highly driven design professionals who create a versatile body of work ranging from architecture and interiors of residences and corporate offices to retail and hospitality spaces. The Principal Architect, MD and founder, Sandeep Khosla, studied architecture at Pratt Institute, New York. Sandeep returned to India and worked as an associate with architect Charles Correa in Mumbai. Thereafter, he established Khosla Associates in Bangalore in 1995. Khosla Associates have in the past 15 years of practice won 14 National Awards including the Inside Outside Designer of the Year Award 2010 and many others. Interviewer & Editor : Park MinSun



코슬라

어소시에이츠

Cosura

코슬라 어소시에이츠 : 신답 코슬라와 아마레쉬

아난드가 이끄는 코슬라 어소시에이츠는 건축과 주택 인테리어, 기업 사무소에서부터 상점과 숙박시설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작업을 다루고 있다. 명망 높은 건축가이자 회사의 설립자인 신답 코슬라는 뉴욕의 프랫 인스티튜트에서 건축을 공부했으며, 인도로 돌아와 뭄바이에서 찰스 코레이의 협력 건축가로 일한 경력이다. 코슬라 어소시에이츠는 지난 15년 동안 작업을 진행해오며 '2010 국내외 디자이너 상'을 비롯한 14가지의 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다. 취재·글 : 박민선 기자

→ Khosla Associates



INDOCHINE, NEW DELHI

Khosla Associates has its own unique characteristics. They use various colors without any rule. By attempting different colors, materials and forms, they are working on commercial, leisure, residential and office designs and the national characteristics are noticeable in their works. Different elements that reflect each country such as wall graphic, statue of the Buddha, pattern and architectural structure in tropical region are used in their space design. In particular, red lamp, tent, Chinese characters and statues in museum are used in <Indochine, New Delhi> to reveal national characteristics. Apart from fancy space, use of various colored lightings are applied in modern and simple space such as in <Touch>. The very minimal element is reflected in this project but it is fancy and unique enough due to their selection of colors and the decorative elements in their structural design elements. Khosla Associates designs creative results through innovative and young sensibility and it is a design studio to be anticipated that provides new experience to people.

Can you introduce Khosla Associates?

Khosla Associates is a leading Architecture and Interior Design firm in Bangalore India. We consist of highly driven design professionals who create a versatile body of work ranging from architecture and interiors of residences and corporate offices to retail and hospitality spaces. Khosla Associate's distinct style of tropical residential architecture uses local materials and concepts, but reinterprets them with an innovative and contemporary design sensibility. The firm's interest in global/local trends in fashion, lifestyle and design is reflected in their varied palette of interior projects. The work of Khosla Associates is featured regularly in important Architectural and Interior publications from around the world.



INDOCHINE, NEW DELHI

코슬라 어쏘시에이츠의 작업에는 그들의 독특한 성향이 들어난다. 그들의 색은 다양하며 규정된 사용법이 없는 듯하다. 색과 재료, 형태에 있어 과감한 시도를 아끼지 않는 그들은 상점, 레저, 주거, 오피스 등 다양한 용도의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작업에서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 요소는 나라적 특성이다. 공간의 벽면 그래픽, 불상, 패턴, 열대지역의 건축 구조형태 등에는 각 나라의 특색이 묻어난다. 특히 <인도차이나, 뉴 델리>에서는 빨간 등불과 천막, 한문, 박물관에만 있을 법한 조각상들을 사용하여 나라적 특성을 뚜렷이 드러냈다. 화려하게 재워진 공간 이외에도 <터치>와 같이 모던하고 단순한 내부에 다양한 색의 조명효과로만 공간을 채우는 작업도 선보였다. 이 프로젝트에는 지극히 미니멀한 요소가 반영됐지만 그들의 탁월한 색감 선택과 공간의 구조적인 설계 요소들은 많은 장식적 요소가 가미된 것만큼이나 화려하며 독특함을 드러낸다. 코슬라 어쏘시에이츠는 혁신적이고 젊은 감각으로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회사로,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들의

활약을 기대해본다.

코슬라 어쏘시에이츠에 대한 소개를 부탁한다.

코슬라 어쏘시에이츠는 인도 방갈로르에 있는 대표적인 건축 및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이다. 스튜디오는 열의 넘치는 디자인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코슬라 어쏘시에이츠가 선보이는 독특한 양식의 열대성 주택 건축에는 지역의 토속 재료와 전통성이 접목되어 있다. 하지만 이 요소들은 혁신적이며 현대적인 디자인 감각에 맞춰 재해석된다. 우리가 작업한 다양한 분위기의 인테리어 프로젝트에는 패션과 라이프 스타일, 디자인 분야에서 결정지는 국제적 조류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드러나 있다. 코슬라 어쏘시에이츠의 작품 세계는 세계 곳곳의 유명 건축 및 인테리어 서적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디자인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는가? 당신을 이 분야로 이끈 건축가/인테리어 디자이너 혹은 계기가 있다면 알고 싶다.



INDOCHINE, NEW DELHI

What was your motive to start involving in design? Was there any architect or interior designer who had been your motivation?

I was in a small Liberal Arts College called Bard in upstate New York where I was studying Fine Arts and economics, but was also exposed to classes in Philosophy, music and literature. In my second year I was introduced to architectural history classes which really spurred my interest in architecture. That prompted me to transfer out into architecture school. I was always inclined towards the Arts from the very beginning and I felt architecture was a great opportunity to express this inclination further. I found the process of drawing and painting fulfilling yet too personal and introverted, I thought Architecture could be more all-encompassing, possibly combining all the arts and reaching out to people formally and experientially. I worked with Charles Correa for a year and a half. I was exposed to building methods in North America which are different from those in our part of the world. So the idea of working with Charles Correa whom I respected was to understand how an intelligent practice has learnt from traditional ideas and then developed them into a contemporary design vocabulary. At Charles' office I understood the importance of voids, and open-to-sky spaces in Indian Architecture. More happen was when I visited Sri Lanka and I got the opportunity to meet Geoffrey Bawa before he passed away. I visited all his projects which left a very positive impression on me. It really chartered a way forward for me - making me understand the kind of architecture I wanted to practice - one that was respectful of tradition, history, climate and context yet was innovative and contemporary. We have over the past 15 years tried to develop our version of an 'Indian Modern' sensibility and have played with permutations of those early ideas that I absorbed when I returned to India.

005

bob



INDOCHINE, NEW DELHI

나는 뉴욕 북부에 있는 바드대학의 문과대에 다녔다. 이 학교에서 미술과 경제학을 공부했지만, 철학이나 음악, 문학 강의를 듣기도 했다. 나는 2학년 때 건축역사 강의를 듣고 나서, 건축에 대해 큰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건축 학교로 옮겨가게 됐다. 아주 오래전부터 예술에 늘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건축을 통해 이러한 나의 성향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도면과 그림을 완성하는 과정이 굉장히 개인적이며 내향적인 작업임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건축은 좀 더 많은 것을 아우를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했다. 나는 건축을 통해 모든 예술이 하나로 엮여지고 형태적인 차원에서나 경험적인 차원에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 또한 찰스 코레아와 1년 반 동안 일한 경험으로 북미의 건축 방식을 접하기도 했다. 이 방식들은 우리 쪽 방식과는 사뭇 달랐다. 그와 같이 일하면서, 전통 사상에서 얻은 건축적 지혜를 현대적인 디자인 어휘로 발전시키는 과정이 얼마나 훌륭한 작업인지 이해할 수 있었다. 코레아의 사무실에서 보이드, 즉 인도 건축에서 하늘을

향해 열려 있는 공간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또 하나의 다른 계기를 들자면, 스리랑카를 여행하며 생전의 제프리 바와를 만나면서이다. 나는 그의 작품을 모두 답사하며 아주 깊은 인상과 영감을 얻었고, 이로 인해서 내가 펼치고 싶은 건축의 세계가 어떠한 것인지 가능할 수 있는 진정한 길을 발견했다. 건축은 전통과 역사, 기후, 컨텍스트를 담고 있지만, 혁신적이고 현대적인 것이기도 하다. 지난 15년 동안 우리는 우리만의 고유한 현대의 인도 건축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해 왔고, 인도에 돌아온 후 내가 체득한 초기의 아이디어들을 하나둘씩 돌아가며 작품으로 구체화 시켜나갔다.

코슬라 어소시에이츠가 추구하는 디자인은 무엇인가?

코슬라 어소시에이츠의 멤버들은 맥락주의자들이다. 디자인은 관련 환경과 특정 대지에서 비롯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특정 대지를 보고 난 후 나는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다. "이 대지는 어떤 건물을 기대하고 있을까?" 우리는 국제적 감각이 살아있는 양식으로 작업하지만,

→ Khosla Associates

What kind of design does Khosla Associates pursue?

At Khosla Associates, we are contextualists who believe that design should be rooted in ones environment and to a particular site. I always ask the question after seeing a particular site, "What building does this site really want to see?" While we work with an international style, we draw inspiration from traditional concepts, craft as well as local material. Our architecture is experiential and attempts to modulate space to create beautiful, peaceful or dramatic spaces. There is certain romanticism to our work, a narrative quality that leads the viewer into varied experiences, and we enjoy creating work which references the old while being wholly contemporary and innovative. Living in a tropical environment, our architecture is climate sensitive and often blurs the boundaries between indoor and outdoors making spaces permeable. The relationship/dialogue between built form and the external environment/topography is very important. Our palette of projects are varied and range from tropical climate sensitive residential and resort architecture, institutional architecture to the interiors of hotels, bars, clubs, restaurants and offices; so we have to wear different hats while designing these spaces. We enjoy the variety and alternate between the disciplines of architecture and interior design.

What are the difficulties of inserting a new element into an empty space?

Inserting a new element into a space is usually a gut reaction, an emotive response to the space or a result of the requirements of the program or client. More often than not, it is a combination of site, context, program and client that prompts us to arrive at a particular solution. These parameters provide us the cues with which to start the ideating process.

TOUCH



전통 사상이나 공예, 토속적 재료로 부터 영감을 얻기도 한다. 우리의 건축은 실험적이다. 우리는 아름답고 평화로우며 이야기가 넘치는 곳을 만들기 위해 공간을 조율하려고 시도한다. 우리의 작품에는 어느정도 낭만적 분위기가 감돌기도 한다. 이러한 분위기는 관찰자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준다. 또한 우리는 전통적인 요소를 끌어오면서도 현대적이며 혁신적인 양상을 유지하며 작품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우리의 건축은 열대기후 환경에 속해 있기 때문에 기후에 민감하고, 때로는 내부와 외부의 경계가 모호해서 공간들이 서로 침투하게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부 환경이나 지형학이 건축과 맞는 관계나 소통 양상이다. 우리가 이룬 프로젝트들은 다양하며, 열대기후에 민감한 주택, 리조트 건축, 기관 시설에서부터 호텔과 바, 클럽, 레스토랑, 사무소의 인테리어에 이르는 여러 분야를 망라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공간들을 설계하면서, 매년 방향을 취해야만 했다. 우리는 다양성을 즐기며,

건축적 기술과 인테리어 디자인이 접목된 대안들을 찾아 내는데 주력한다.

빈 공간에 새로운 요소를 삽입하는 데에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공간에 새로운 요소를 삽입할 때는 항상 직감적인 반응이 작용한다. 이것은 공간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반응하는 일이며, 프로그램이나 건축주가 요구하는 것을 감각있게 해석해 내는 일이다. 대지와 컨텍스트, 프로그램, 건축주라는 요소를 하나로 결합함으로써 우리는 적절한 디자인 해결책을 찾아내곤 한다. 이러한 건축적 매개변수들은 아이디어를 풀어나갈 수 있게 해주는 단서가 된다.

당신들이 특별히 선호하는 재료가 있는가?

우리는 주로 자연재료나 지역의 토속적 재료들을 선호하는 편이다. 예를 들자면, 인도에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토속 석재들과 석판이 풍부하다. 이 재료들은 손이 많이 안가는

SPINN



TOUCH

Is there any material that you prefer?

We are generally partial to natural and locally sourced materials. We have for example a wealth of local stone and slate in India. Not only are these cost effective to use, but also a sensible way to reduce our carbon footprint and work with more sustainable means.

As it can be seen in <Touch>, what do you consider most when you apply colors into a space?

<Touch> was an experimental project where we wanted to see the effect of pre programmable LED light bouncing off a white shell. The space has the ability to change color not by the application of color onto the surfaces, but merely by the changing hues of light bouncing off its linear and fluid forms. LED light concealed entirely above the folds of fabric in the ceiling bounce preset colors seductively through the fabric onto the rest of the space. In <Carbon Bar>, a more recent project of ours at the Park hotel, Hyderabad we explored the effect of color changing light on a dark space. Central to the theme of the bar is the creation of an over scaled and highly faceted structure that boldly references the multiple facets of a black diamond and slivers of dimmable LED light emanate from within translucent resin strips molded on the edged of all the facets. The pre-programmable LED light has the ability to change color altering the mood of the space.

You have worked on residential, office, commercial, institution designs. Which field do you wish to work on that you have never attempted before?

Thus far, we have primarily worked in the luxury and leisure segments - high end residential, commercial, retail and hospitality. It would be good to attempt a project for lower income groups too. I have also always wanted to design a Museum for contemporary Art.



ROXY

저가의 자재일 뿐 아니라, 탄소발자국을 줄이고 좀 더 지속가능한 수단을 사용하여 작업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안을 열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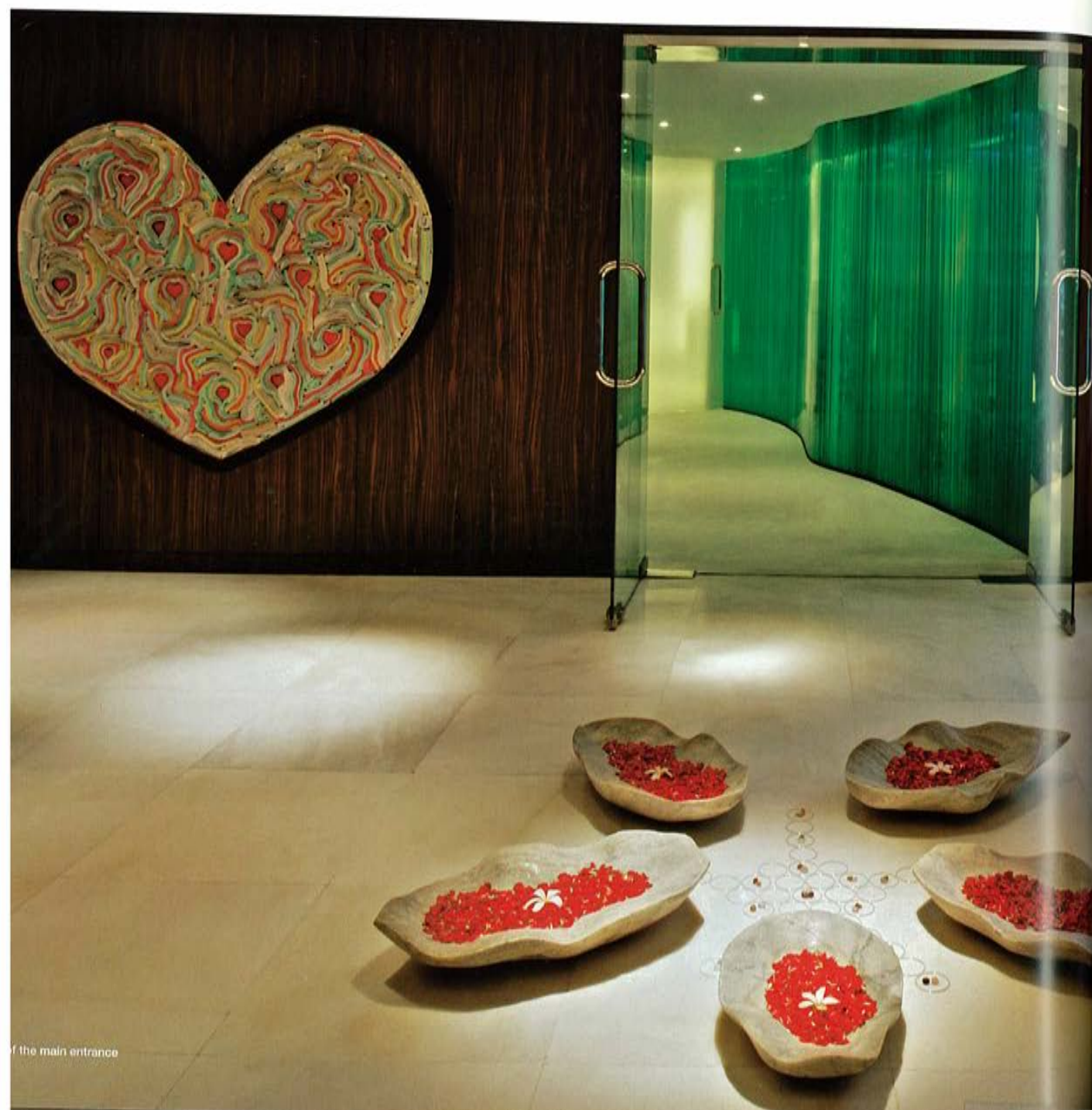
<터치> 프로젝트에서 볼 수 있듯이 공간에 색을 반영시킬 때 가장 고려하는 점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

<터치>는 실험적인 프로젝트였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미리 프로그램 된 LED조명이 하얀 피막 안에서 깜박일 때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 확인해 보고싶었다. 이 공간은 표면에 색을 직접 입혀서 다양하게 색감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빛이 선적이며 유동적인 형태를 만들며 깜박이면서 공간에 다양한 색조를 드러낸다. 천장의 집힌 천 위에 완전히 감추어져 있는 LED 조명은 미리 지정된 색상을 반사하며 공간 이곳저곳에 입혀진 천 위를 유혹하듯 떠다닌다. 또한 우리는 하이데라바드의 파크호텔 내에 마련된 최근작인 <카본 바>에서 어두운 공간에서 색상을 변화시켜주는 빛의 효과를 실험했다.

이 바의 핵심 주제는 많은 표면을 가진 커다란 구조체를 만드는 것으로, 이것은 블랙 다이아몬드의 많은 표면을 대담하게 표현해 낸 것이다. 또한 모든 표면 가장자리에 만들어져 있는 반투명한 레진 안쪽에서부터 흐릿한 은빛 LED 빛이 퍼져 나오게 한것은 프로젝트의 중요한 아이디어였다. 우리는 미리 프로그램 된 LED 조명으로 색상을 바꾸어가며 공간의 분위기를 변모시켰다.

당신들은 그동안 주거, 오피스, 상점, 기관 등의 다양한 작업으로 활동 해오고 있다. 아직 다루어보지 못했거나, 시도하고 싶은 분야가 있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고급 주택이나 상업시설, 상점, 숙박 시설과 같은 고급 레저 분야의 일을 주로 다루어 왔다.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젝트들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 또한 나는 현대 미술을 전시할 수 있는 박물관을 설계하고 싶다.



of the main entrance

↳ Khosla Associates A U R A S P A

Design : Khosla Associates **Design team :** Sandeep Khosla, Amaresh Anand, Dhaval S **Client :** The Park Hotel **Location :** Hyderabad, India
Built area : 719.99m² **Completion :** February 2011 **Photographer :** Bharath Ramamrutham **Editor :** Park Minsun



The Park Hotel's latest property in Hyderabad has a central theme of a contemporary palace and several designers from across the world were commissioned to design its varied spaces using the erstwhile Nizam of Hyderabad's jewels as inspiration. A particularly uninspiring space devoid of natural light and ventilation in the basement of the hotel was converted by Khosla Associates into a sparkling environment inspired by the sheen, transparency, and whiteness of the Golconda Diamond. The entrance curved corridor walls of the Spa were built out of edge polished vertically stacked glass, leading to a circular reception area with a fluid reception counter and relaxed customer seating sheathed in molded white resin. The stacked glass walls glow from within with LED light giving the surrounding spaces a feeling of lightness. The reception is a spacious transitional area leading gently to a sensuous curved relaxation area and a series of well appointed therapy rooms and suites. The minimalist transition areas in the Spa are peppered with carefully chosen pieces of mirrored organic sculpture by French artist Yael Chirinian. The reflection of spot lights on this mirrored form deflects onto wall, floor and ceiling surfaces giving an ethereal feel to the space. In the circular relaxation area comfortable loungers are divided by sheer white curtains bathed in preprogrammed washes of LED light. The entrance wall and doors of the treatment rooms are clad in an embossed silver foil, and the curved walls of treatment rooms in a padded diamond shaped pearl white fabric, adding to the feeling of luxury within the space. The material palette plays on varied tones of white to enhance the feeling of openness, and built in washes of light in coves, on fabric, textured paint and molded white resin uplift the space further. Text by Khosla Associates

최근에 하이데라바드에 들어선 파크호텔은 현대판 왕궁이라는 기본 주제에 따라 디자인된 것으로, 세계 여러 디자이너들이 하이데라바드의 군주 니잠의 보석을 영감으로 다양한 공간들을 디자인했다. 그 중 코슬라 어소시에이츠는 햇빛이 들어오지 않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호텔 지하의 맛있는 공간들을 다채로운 분위기의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공간 디자인은 골콘다 다이아몬드의 광택과 투명성, 순백에서 영감을 얻었다. 스파 복도의 굴곡진 벽으로 이루어진 입구 공간은 광택이 있는 수직 유리들이 겹쳐져 만들어졌다. 입구를 지나 펼쳐지는 곡선 모양의 리셉션에는 유연한 형태의 리셉션 카운터와 백색 레진으로 덮힌 고객용 의자가 마련되어 있다. 겹쳐진 유리벽은 LED조명으로 빛을 발하며, 주변 공간에 밝은 느낌을 준다. 리셉션 영역은 일종의 전이 공간으로, 감각적으로 굴곡진 휴식 공간과 실비가 잘 갖추어진 테라피 룸, 그리고 스위트 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공간에 장식된 프랑스 예술가 아델 시리니앙의 유기적 조각품은 거울로 이루어진 작품으로, 이 거울에 빛이 반사되어 벽과 바닥, 천장 표면으로 빛이 퍼져나가 공간에 천상의 느낌을 감동케하며, 스파 내의 미니멀한 휴식 공간에서 그 진가를 발휘한다. 안락한 분위기의 라운지는 각각의 공간이 프로그램 된 LED 빛줄기를 흡수하는 순백색의 커튼으로 구현했다. 관리실의 입구벽과 문은 양각무늬로 된 은박으로 마감했고, 다이아몬드 모양의 폭신한 형태와 진주처럼 하얀 페브릭으로 마감된 곡선의 벽은 공간에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더해준다. 공간에 주로 사용된 하얀색의 여러 마감재들은 공간에 개방된 느낌을 강화시켜주는 요소이며, 쏟아지는 조명 빛줄기로 인하여 다양한 느낌의 질감과 채색으로 연출되어 공간을 한층 더 독특하게 만들어준다. 글 : 코슬라 어소시에이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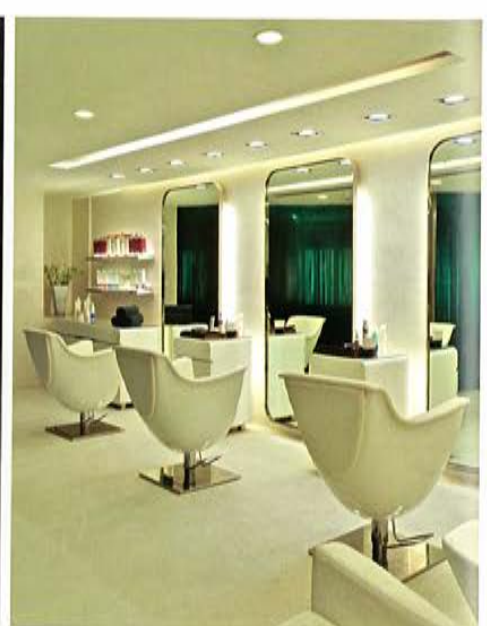
069
bob



View of the seating area at the recep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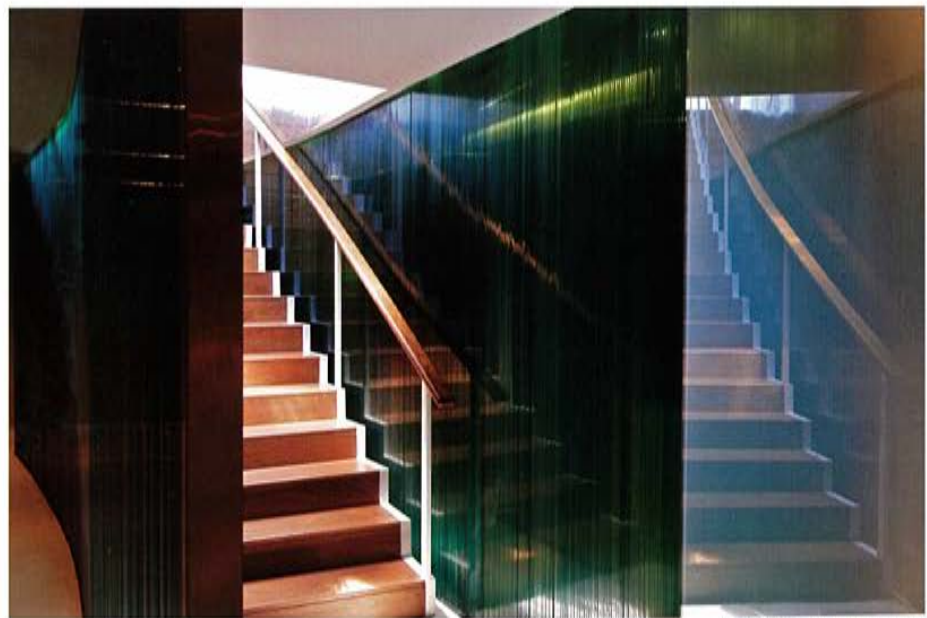
Corridor to the reception



View of the sal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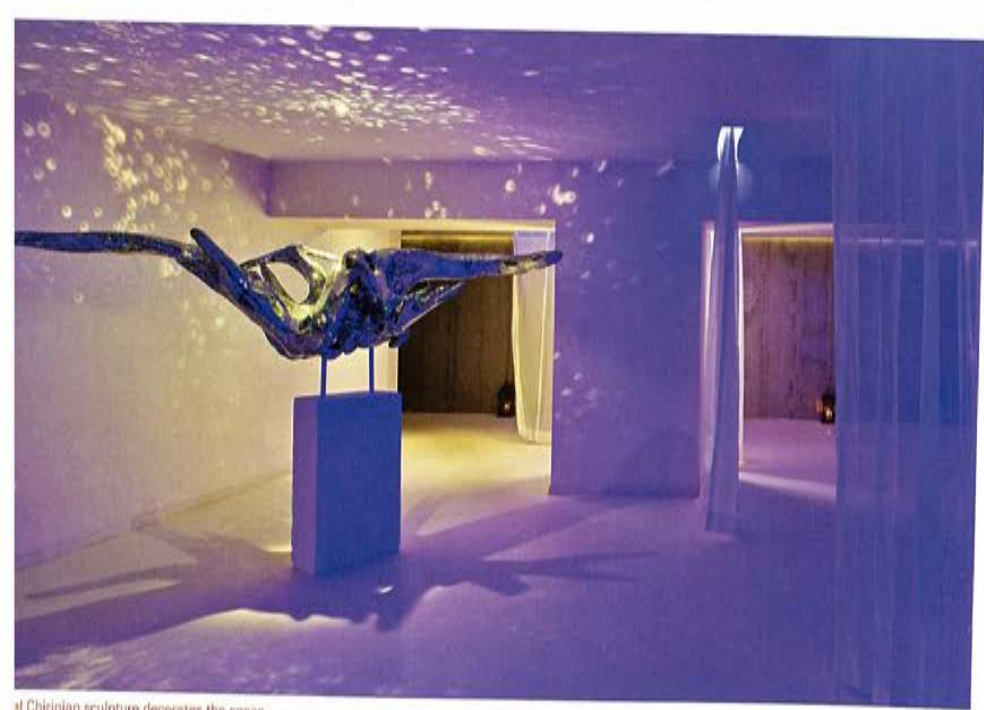
Curved wall and translucency elements decorate the salon area



View of the stairs to the reception



colored corridor in front of therapy r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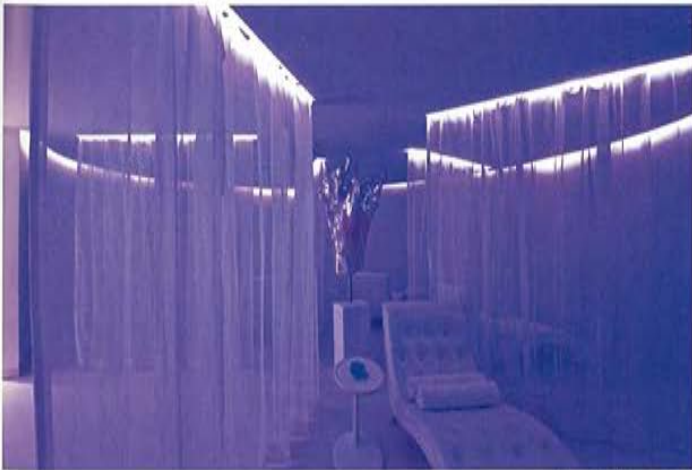
al Chirilan sculpture decorates the space

- 1 MAIN ENTRANCE
- 2 SALON
- 3 GYM
- 4 RECEPTION / SEATING
- 5 ENTRANCE FROM POOL
- 6 YOGA / PILATES
- 7 MALE WET AREA
- 8 FEMALE WET AREA
- 9 RELAXATION / CHROMO THERAPY AREA
- 10 THERAPY ROOM
- 11 FACIAL ROOM
- 12 COUPLE SUITE



0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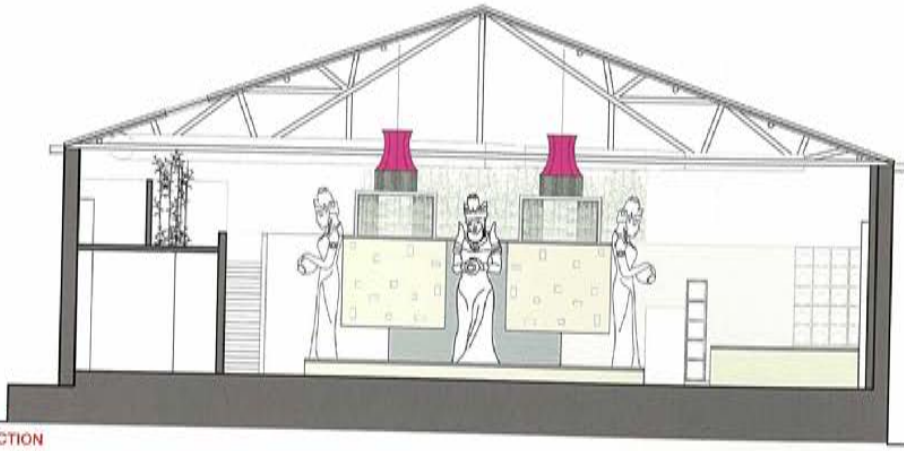
bob



View of a therapy room



View of a couple suite



SECTION



General view of the lounge

↳ Khosla Associates

SHIRO LOUNGE B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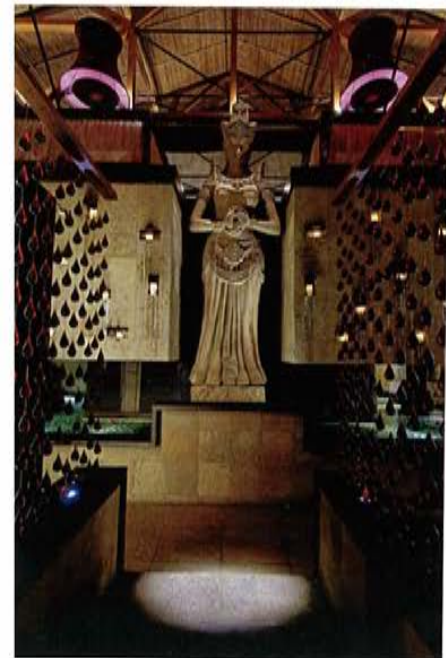
Design : Khosla Associates **Design team :** Sandeep Khosla, Amaresh Anand, Madhavi Choudapurkar **Client :** JSM Holdings Pvt. Ltd **Location :** Mumbai, India **Built area :** 371.6m² **Completion :** 2006 **Photographer :** Pallon Daruwala **Editor :** Park Minsun



'Shiro', which in Japanese means 'castle' has a mysterious aura as you enter its lofty proportions. <Shiro Lounge Bar>'s space has an exciting mix of the authenticity of the orient; old wooden blade fans whirring at low speeds against a traditional bamboo ceiling, antique Chinese chests, vast expanses of pebbled water bodies with lotuses, Thickets of Japanese bamboo planting, and old Balinese friezes. Yet the space is also very contemporary and minimal with its bold moves, clean straight lines and contemporary furniture. Stone walls flank a 4.8m high antique acid finished metal door. Crane your head up and you encounter the awesome proportions of a 13.7m high bamboo clad dimly lit pitched roof. Dominating the central space are three 6m high Balinese consorts dropping water via earthen vessels into a large moat filled with pebbles and lotuses. The space is primarily divided into 4 zones - 2 private rooms and the bar area on the lower level and stairs ascending to a VIP area on a 3m upper level. The upper level has views of a 15m mural of East Asian origin, emerging from which are bamboo spouts dropping water into a vast pebbled reflecting pool. Two Balinese dragons perched on the water guard the space. Another interesting element is a dramatic wall composed of repetitive Chinese urns in square niches, backlit against a backdrop of floral silk and surrounding a central sculpture of a south East Asian musician. Two portals leading to the private rooms are reminiscent of Japanese 'shoji' screens. Handmade paper is fused on acrylic in repetitive squares and lit from within, throwing a subtle shadow of an old Japanese woodcut print on the paper. Rich furnishings in the rooms in deep saturated colors such as crimson, magenta, garnet and ochre, in high quality silk, printed chenille and Patent leather stand in contrast to the otherwise subdued rustic shell. The most exciting aspect of <Shiro Lounge Bar>'s design was the degree of customization we were able to achieve. The vast volume of the mill building demanded customization of furniture, objects, light fixtures, and accessories that were all made locally and specifically for the monumental scale of the space. Text by Khosla Associates



Pink hanging lighting and the statue decorate the space



standing statue is located in the space



View of VIP area on the mezzanine lev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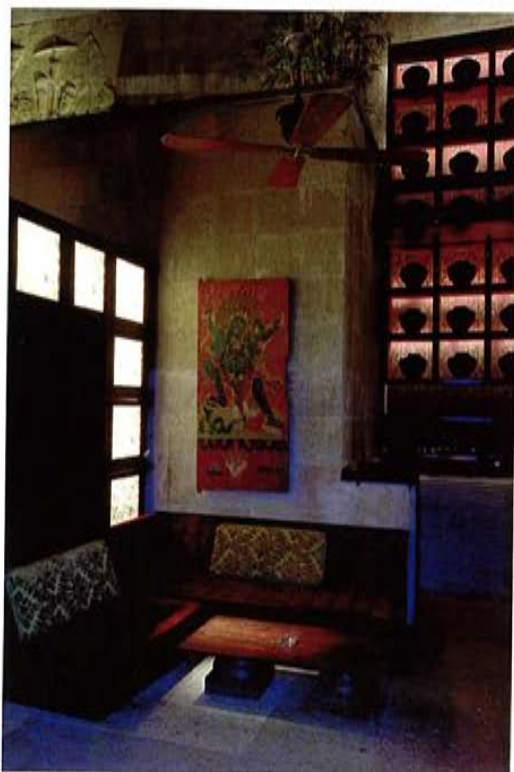
View of private room

일본어로 '성'을 의미하는 '시로'의 공간에는 신비스러운 아우라가 느껴진다. <시로 라운지 비>에는 동양의 진정성이 한데 어우러져 있다. 전통적인 대나무 천장을 배경으로 돌아가는 고재로 된 맨, 중국풍 서랍장, 연꽃과 조약들로 꾸며진 수공간, 일본식 대나무숲, 발리의 전통 장식벽 등은 공간에서 서로 어우러지며 나라의 특성이 강한 공간을 만든다. 지극히 전통적인 요소들은 직선이 사용된 대담한 동선 처리와 배치된 현대식 가구로 인해 현대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고풍스럽게 산화 처리된 벽 양쪽의 금속문과 경사 지붕으로부터 은은한 빛을 받고 있는 천장은 13.7m 높이의 대나무가 드러나며 공간을 웅장하게 압도시킨다. 공간의 주된 요소는 물을 떨어뜨리고 있는 6m 높이의 발리어왕상이다. 떨어지는 물은 동쪽의 수반을 지나 자갈과 연꽃으로 가득한 못으로 흘러간다. 공간은 2개의 독립적인 방과 아래층의 바, 그리고 3m 높이의 VIP공간으로 연결되는 계단실의 4개 영역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위층에 배치된 15m 높이의 동아시아풍 벽화에서는 대나무가 뻗어 나와 넓은 수공간에 물을 뿜어낸다. 발리를 상징하는 두마리의 용은 공간을 호위하듯 물 위에 자리 잡고 있어 지역적 특색이 강한 공간을 만든다. 이 프로젝트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재미있는 요소는 정방형 벽감 속에 놓여있는

중국풍 향아리들로 장식된 벽이다. 반복적으로 배치된 이 향아리들은 벽면에 마감된 꽃 모양의 비단재질로 인해 역광을 받게되며, 중심에 배치된 서남아시아 음악가의 조각과 함께 공간에 신비스러운 효과를 준다. 개별실로 이어지는 두 곳의 문은 일본식 칸막이 '쇼지'를 연상시킨다. 수제 종이에는 똑같은 모양의 여러 정방형이 아크릴로 처리되어 있어, 마치 일본의 오래된 목판화 그림이 종이 위에 오묘한 그림자를 드리우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 방의 호시스러운 가구들은 고품질의 비단, 프린트된 서닐실, 에나멜가죽으로 만들어져 스탠드가 내는 진홍색, 자홍색, 가닛색, 황토색과 같은 색상으로 물들어 있다. 공간은 자칫 전통적인 요소의 차분한 시골풍 분위기에 머물렀을 수도 있지만 다채로운 색이 연출됨으로써 감각적인 공간이 됐다. <시로 라운지 비>의 디자인에서 가장 놀라운 양상은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 맞게 주문 제작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가구와 물품들, 조명기구, 소품들은 제본소 건물의 큰 규모 때문에 모두 자체 제작해야만 했고, 이것들은 큰 규모의 공간에 맞게 지역의 공방에서 특별 주문되어 만들어졌다. 글 : 코슬라 이모시메이조



A drop formed partition and long hanging lighting decorate bar a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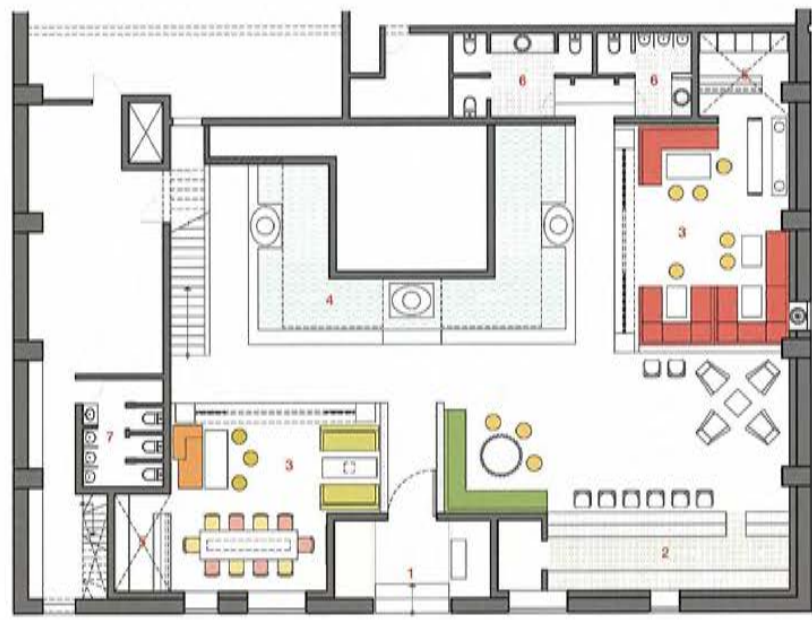


Chinese urns in square niches on the wall in private room



Many of cultural elements are used in the space

- 1 ENTRANCE
- 2 BAR COUNTER
- 3 PRIVATE ROOM
- 4 WATER BODY
- 5 SERVICE BAR
- 6 TOILETS
- 7 STAFF TOILETS



GROUND FLOOR PLAN



Two Balinese dragons perched on the water



S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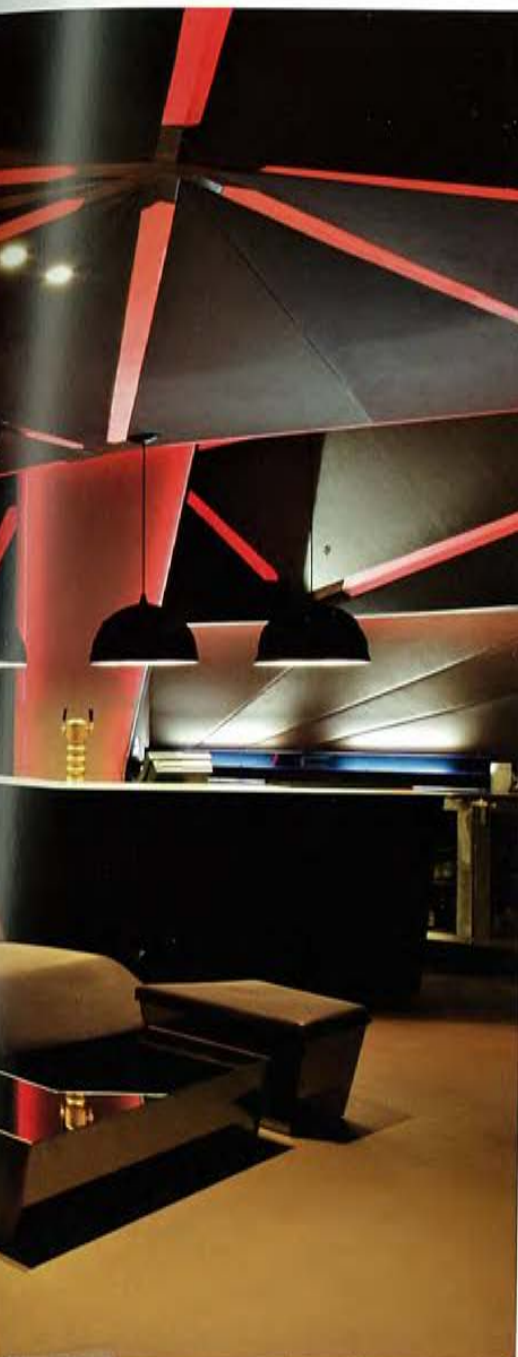


General view of the bar

↳ Khosla Associ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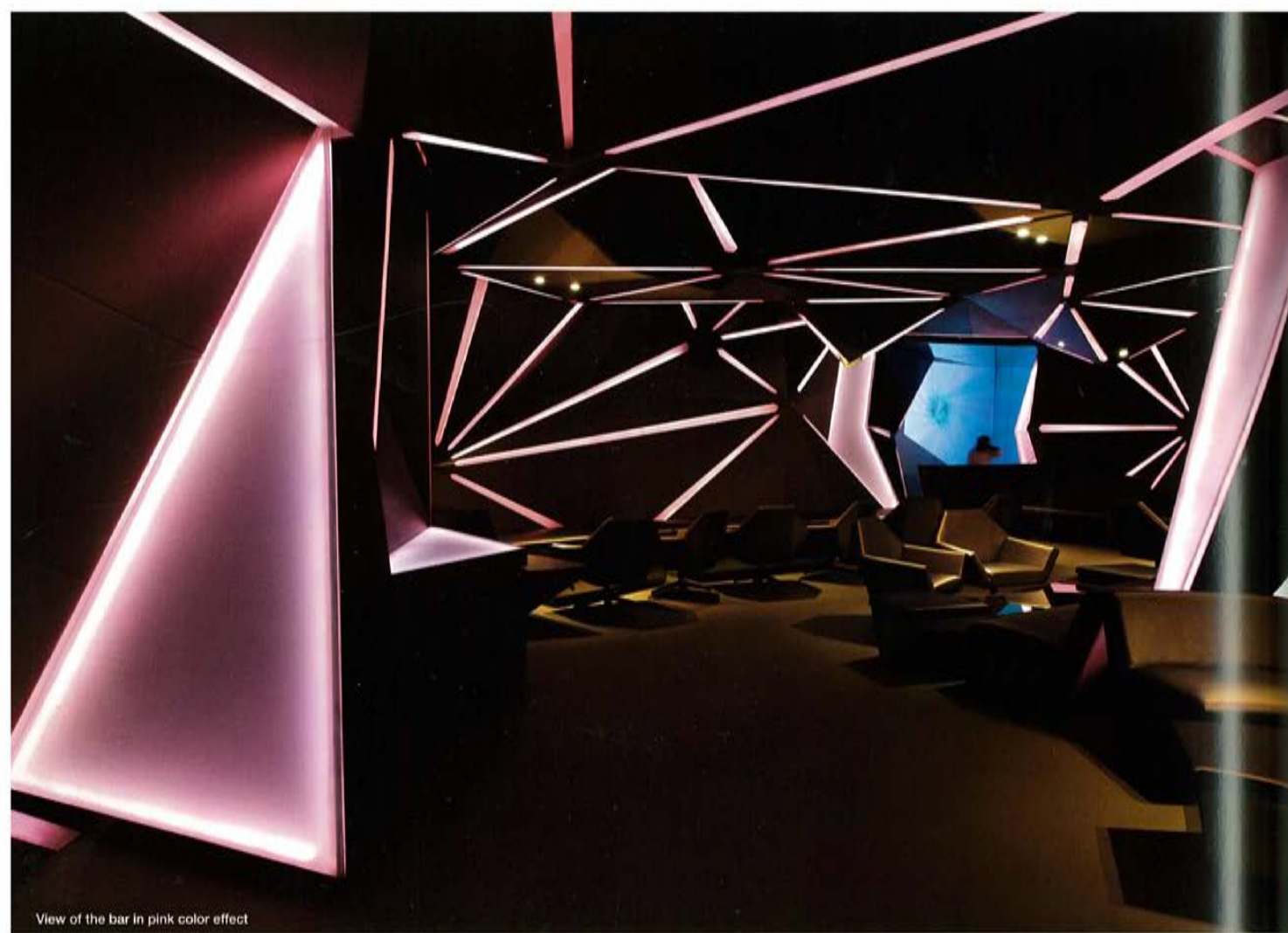
CARBON BAR

Design : Khosla Associates **Design team :** Sandeep Khosla, Amaresh Anand, Dhaval S **Client :** The Park Hotel **Location :** Hyderabad, India **Built area :** 157.93m² **Completion :** February 2011 **Photographer :** Bharath Ramamrutham **Editor :** Park Minsun



The <Carbon Bar> is a space where the Nizam of Hyderabad's jewels in a completely abstract and futuristic way. Central to the theme of the bar is the creation of an over scaled and highly faceted structure that boldly references the multiple facets of a black diamond; the idea is abstracted by creating a dramatic faceted labyrinth that dynamically and unpredictably envelopes the entire space. Seating moulds into walls and then onto the ceiling. The sofas, single seaters and tables are angled and faceted in keeping with the aesthetic of the outer shell. Sharp edges of the faceted walls are softened by the luxury of padded fabric. Slivers of dimmable LED light emanate from within translucent resin strips molded on the edge of all the facets. The pre-programmable LED light has the ability to change color altering the mood of the space. The color palette is deliberately stark. Monotones of copper and dark champagne are offset with certain facets in bronzed mirror. Prisms like projections are played on the triangulated wall behind the DJ counter. The flooring is seamless, a bronze vinyl, and the ceiling reflects the same faceted shapes as the walls. Text by Khosla Associates

<카본 바>는 하이데라바드의 군주인 니잠의 보석을 추상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로 해석해 놓은 공간이다. 이 바는 블랙 다이아몬드의 다면체처럼 커다란 크기로 깎여진 면들로 공간이 구성됐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여러면들로 이루어진 극적인 미로를 만들어 낸다. 벽과 천장 등 공간 전체를 역동적으로 감싸고 있는 면의 형태는 바의 가구에도 반영되어 소파와 테이블은 주변을 감싸는 구조적 형태의 미학을 그대로 따른 각이진 모습으로 공간 내에 배치됐다. 조각난면들로 이루어진 벽의 날카로운 모서리는 고급스럽고 폭신한 패브릭으로 부드럽게 처리됐으며, 면의 가장자리에는 반투명한 레진의 띠에서부터 은색의 LED 빛이 스며 나온다. 색이 계속 변화되도록 미리 프로그램 되어진 LED조명은 공간의 분위기를 매번 새롭게 바꾸어 주고, 전체 공간은 구리색과 같은 어두운 색조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선으로 처리된 조명에 주목할 수 있도록 했다. DJ카운터 뒤쪽의 삼각형벽 위로 분사되는 프리즘은 연속된 면으로 이루어진 공간에서 다른 빛의 형태로 공간의 용도를 분리시킨다. 청동색 비닐로 마감되어 이음새 없이 매끈한 바닥은 천장과 벽에서 발산되는 빛을 반사시킨다. 이는 마치 다이아몬드 한 가운데에 서있는 듯한 느낌을 주며 주위를 둘러싼 조명빛에 잠겨있는 듯한 착시를 주기도 한다. 글 : 코슬라 아모사리아스



View of the bar in pink color eff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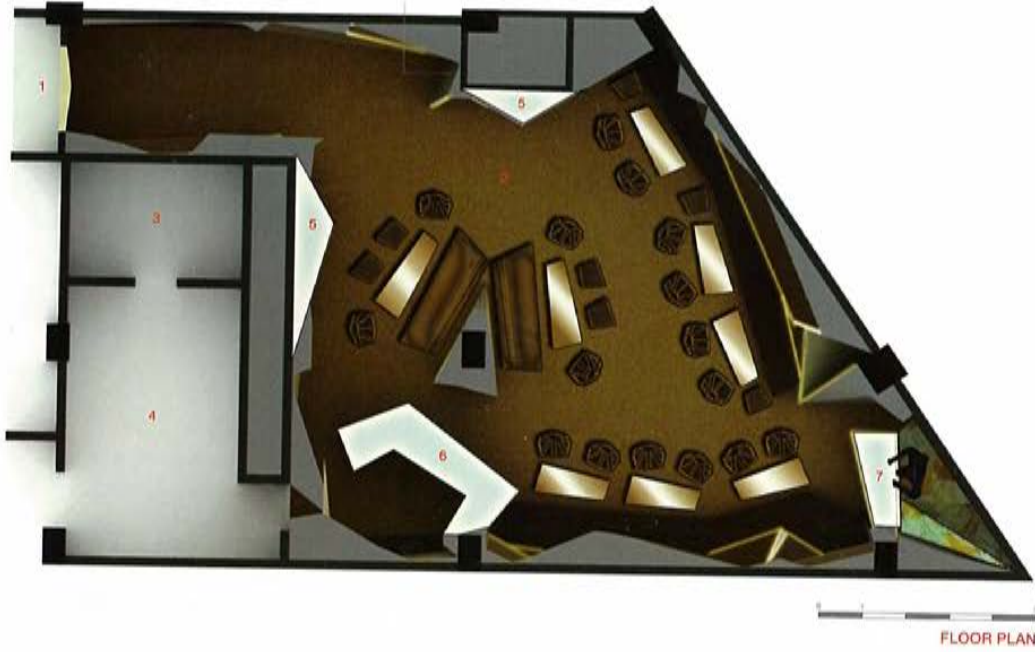


Furniture has a connection to the pattern



View of the space in blue color

- 1 ENTRANCE
- 2 MAIN BAR
- 3 BAR STORE
- 4 BAR PANTRY
- 5 SERVICE COUNTER
- 6 BAR COUNTER
- 7 DJ CONSOLE



The entrance view